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IBKS FI Comment

FOMC COMMENT: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긴축

- FOMC 결과: 만장일치 동결(5.25~5.50%)
- 성명서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인플레이션 목표치까지의 추가 진전 부족 등 불확실성 커진 것을 인정한 점
- QT에 대해서는 국채를 기존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축소
- 시장은 먼저 이에 대해 크게 반응한 것으로 보임
- 한편,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며 도비쉬한 스탠스 보임
- 다만, 여전히 긴축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인플레이션의 2% 도달을 여전히 주장
- 근본적으로는 통화정책 스탠스가 변한 것이 없다고 판단
- 미국채 10Y 금리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당분간 4.5%를 하회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

국채 위주의 QT 규모 축소

5월 1일(현지 기준) 미국 연준은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5.50%로 유지한 가운데, 해당 결정은 멤버 12명 전원 만장일치였다.

먼저 성명서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첫번째 문단에서 인플레이션 2% 목표치까지의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고 한 점과, 두번째 문단에서 고용 및 인플레이션 목표가 더 나은 균형으로 가고있다는 것을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 1년 동안의 현재 완료형으로 바꾼 점이다. 즉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최근 고조된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되며 금리 정책에 대해서 여전히 긴축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성명서에는 시장에서 관심이 많았던 QT 관련 대목을 추가했는데, 그 규모에 대해 국채를 기존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 MBS를 기존 350억 달러로 유지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관련 대목보다는 국채 축소 규모가 기존 대비 감소한 것에 대해 안도감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미국채 금리는 장 시작부터 낙폭을 키웠다.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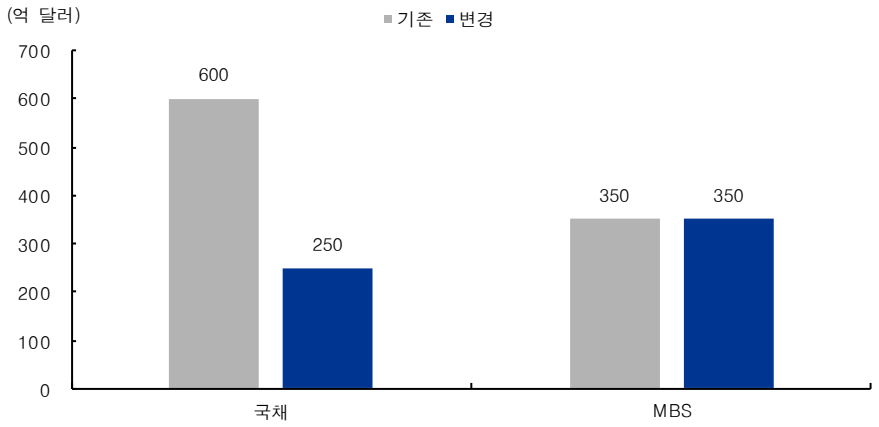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의장은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향해 적절한 통화정책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면서도 예상보다는 도비쉬한 언급을 했다. 현 수준의 통화정책이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임을 언급하면서, 그 근거로 최근까지의 고용 및 물가 관련 주요 지표들이 고점 대비 대체로 낮아졌음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한 기자의 미셸 보우먼 이사의 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 관련 질문에 대해 다음 회의까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시장은 이에 가장 크게 환호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해당 발언 즈음부터 4.6%를 하회한 이후 재차 소폭 되돌렸다.

최근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불거졌던 만큼, 시장 내 투자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파월 의장은 그 외에는 여전히 원론적인 발언들을 했으며 현 긴축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지속할 것임을 주장했다. 필자가 주목했던 것은 인플레이션 목표치의 3% 변경 가능성 관련 질문에 대해 파월 의장이 해당 가능성을 단호히 일축하며 여전히 2%까지 도달해야 함을 주장한 부분이다. 시중금리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는 변한 것이 없다. 물가 불확실성이 최근 커진 점과 2% 도달 가능성을 주장한다는 점을 종합해서 고려할 시, 당분간 미국채 10Y 금리가 4.5%를 하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Fixed Income Analyst
권기중
02) 6915-5654
kjoong@ibk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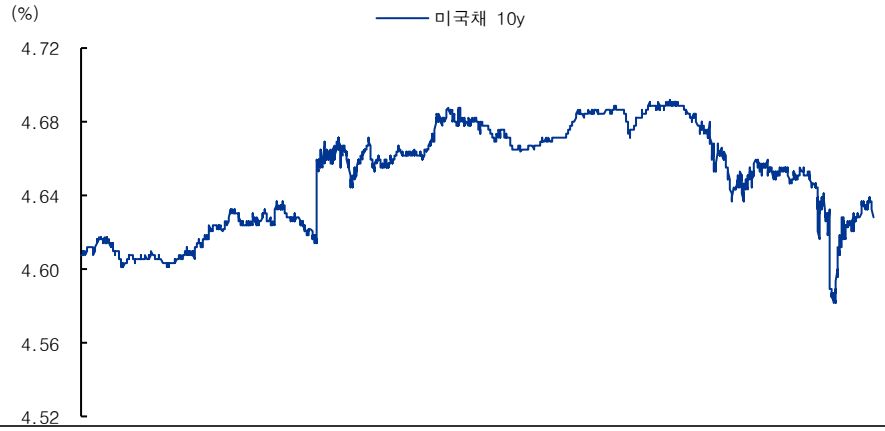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림 1. 국채에 대한 QT 규모 축소는 금리 하락 요인



자료: FRB, IBK투자증권

그림 2. 5월 1일 미국채 금리 변동 추이. 파월 의장의 인상 가능성 이후 급락했으나 이내 소폭 되돌림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